

경제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물관리 자동화시스템 첫 개발

■ '대영' 장애자 대표

나주 남평에 있는 IT(정보통신) 업체인 (주)대영은 국내 최초로 지능형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지난 2000년 11월 설립해 영상·음향·원격 제어 가능한 물관리 전용 '영상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DVTC)'을 개발했다. 최근에는 자체 기술로 '물관리 자동화 전용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대영이 개발한 물관리 자동화 시스템은 인터넷과 영상·음향 장치를 이용해 실시간 움직임과 소리를 파악,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안내·경고 방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낙뢰·도난 대처 기능과 통신주철식 자가운전 기능 등이 갖춰져 집중호우가 잦은 우리나라의 여름철 홍수에·경보와 하천재난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또 농경지 물 관리와 상수도 가압장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처리 시설 관리, 댐·담수호 수질 측정 및 시스템 제어, 하천오염 및 환경감시 시스템에도 적용 가능하다. 현재 이 시스템은 저수지·댐·우수로 등 150여 개소에 적용되고 있다.

대영은 최근 물관리 자동화 전용 프로그램 개발도구인 '에버콘(Ever Con)'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사용자가 쉽게 현장과 동일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이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 시상식이 29일 광주일보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유재철 광주일보 사장, 장애자(주)대영 사장, 심재근(주)참든마을 사장, 임충식 광주전남중기청장.

대영은 지난 2006년 벤처기업과 이노비즈기업인증을 받았고, 2007년 대한민국 특허대진 금상을 수상,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또 40여 건의 국내외 특허와 CE·GQ마크 등 10여 건의 인증을 받는 등 품질 향상에도 전력, 중소기업 우수제품, 조달청 우수제품에 선정됐다. 2008년 21억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32억원, 올 목표액은 45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현재 직원 18명.

장애자(여·51) 사장은 "최고의 기술력만이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부실연구소 운영 등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해외 시장을 개척,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의 물길을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실온보관 유기농 식품 생산

■ '참든마을' 심재근 대표

명했으며, 참든마을이 제품화에 성공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제품 개발 사례가 많지 않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또 지난해 남부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연구를 통해 암환자나 만성질환자에게 효과적인 면역조절작용과 항암효과를 가지고 있는 '혼합아채스프'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오는 하반기에 상품화를 시킬 계획이다.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항비만 제품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들 제품들은 생활합동조합, 녹색장터 등 친환경 매장과 홈쇼핑, 전자상거래(www.greenvi.net)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다음 달 HACCP 인증을 마치면 미국·일본·중국·호주 등 수출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참든마을의 제품은 믿을만하다. 원료인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생산 농가와 전량 계약 재배를 통해 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소비자는 믿을만한 먹을거리를 제공받고 있다.

참든마을은 지난 2008년 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25억원, 올해는 35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심재근 사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매주 목요일을 통해 전 직원이 위생과 식품안전, 신상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기아채수는 일본 예방의학화 연구소 다테이시 가즈 박사가 발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철광석·구리값 너무 치솟는다

작년의 2배까지 ... 제조업 '먹구름'

최근 철광석·구리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철광석을 t당 110달러 수준에 도입키로 계약했다. 이는 작년의 t당 60달러 수준보다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또 현재 철광석 현물가격은 t당 150달러를 넘어섰다.

5월 경기전망도 밝지는 않다. 제조업의 업황전망BSI는 103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제조업 체산성BSI는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87을 기록했다. 제품 판매가격BSI가 전달보다 4포인트 상승한 112를 기록했지만, 원자재 구입가격BSI가 14포인트 상승한 탓에 체산성이 악화됐다.

실제 산업은행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외 주요 철강업체들은 올해 4~6월 간 철광석을 t당 110달러 수준에 도입키로 계약했다. 이는 작년의 t당 60달러 수준보다 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또 현재 철광석 현물가격은 t당 150달러를 넘어섰다.

5월 경기전망도 밝지는 않다. 제조업의 업황전망BSI는 103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비제조업의 업황전망BSI(87→82)도 5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체들은 이같은 전망의 배경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26.7%), 내수부진(12.8%), 불확실한 경제상황(11.9%) 등을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11.2%), 자금부족(7.6%), 경쟁심화(4.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0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기업으로 원태를 조사한 결과 24.8%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감내할 만한 수준을 넘었다'고 답했다. '앞으로 약 10% 상승까지는 감내할 수 있다'는 60.1%, '20% 이내 상승까지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12.1%에 그쳤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중소기업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수준을 넘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전체의 3분의 1(29.8%) 수준이었고, '10% 이상 상승하면 감내 불가능'이라는 응답은 59.2%를 차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전남 중소제조업 가동률 '쑥쑥'

3월 평균 72.1% ...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광주·전남 중소제조업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107개(광주 48, 전남 59) 중소제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3월 평균 가동률이 72.1%로 전달 71.5%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2008년 5월(72.5%) 이후 1년10개월 만의 최고치다.

특히 광주 중소제조업체 가동률은 72.7%로 전달보다 1%포인트 상승, 지난해 1월 72.8%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남은 72.1%였고, 전국 평균은 72.4%로 조사됐다. 가동률 상승은 중소기업이 이끌었다. 중소기업은 지난 2월 가동률 73.1%에서 3.3% 오른 76.4%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71%에서 70.9%로 오히려 떨어졌다. 광주·전남본부는 자동차·LCD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가

지난 2008년 1월 72.8%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남은 72.1%였고, 전국 평균은 72.4%로 조사됐다.

가동률 상승은 중소기업이 이끌었다. 중소기업은 지난 2월 가동률 73.1%에서 3.3% 오른 76.4%를 기록했다. 대기업은 71%에서 70.9%로 오히려 떨어졌다.

광주·전남본부는 자동차·LCD 등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증가가

동률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68.8%→77.6%), 가죽·가방·신발(72%→80%), 섬유제품(68.3%→76%), 전기장비(74.5%→78.3%), 자동차 및 트레일러(81%→85.8%) 등 13개 업종의 가동률이 올랐다.

반면 식료품(76.7%→74.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65.2%→64%),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기계(78.8%→75.8%) 등 6개 업종의 가동률이 떨어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중소형아파트 거래 잘된다

1분기 8000만~1억원대 930건 ... 전분기보다 39% 늘어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에서는 실거래가 8000만~1억원대 중소형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 정보 전문업체 사랑방신문(www.sarangbang.com)에 따르면 올 1~3월 거래된 아파트 5593건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8000만~1억원의 아파트 거래가 93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0%, 전 분기 대비 38.6% 증가했다.

5000만원 미만 소형 아파트 거래도 45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1.8% 늘었다. 중소형 평형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다 계절적 요인으로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1억2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아파트 거래는 전년 동기보다 8.2% 감소했다.

올 1분기 아파트 거래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북구가 1731건으로 31.0%

를 차지해 가장 활발했고 이어 광산구 1728건(30.9%), 서구 1255건(22.4%), 남구 752건(13.4%), 동구 127건(2.3%) 등의 순이었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134㎡ 아파트가 2682건으로 47.9%를 차지했고 이어 60~84㎡ 2070건(37.0%), 40~59㎡ 577건(10.3%), 135~165㎡ 140건(2.5%) 등의 순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특허청장에 이수원씨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신임 특허청장에 이수원(55) 청와대 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수원씨는 특허청장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이수원씨는 특허청장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이수원씨는 특허청장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신임 특허청장에 이수원(55) 청와대 비서관을 내정했다. 이수원씨는 특허청장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이수원씨는 특허청장 후보로 최종 선정됐다.

광주 상업용 빌딩 투자 수익률 상승

매장용 1.73%·오피스 0.2%

광주지역 상업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이 전분기에 비해 상승했다. 하지만 수요 부족으로 공실률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해양부가 광주를 비롯해 7대 주요도시에서 있는 6층 이상 오피스 500동과 3층 이상 매장용 1000동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광주 오피스빌딩 투자수익률은 0.20%로 전분기보다 0.13%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이는 전국 평균 2.43%에 크게 못 미친 전국 최하위였다.

반면 매장용빌딩은 전국에서 가장 큰 폭(0.78%포인트)으로 상승, 1.73%를 기록해 서울(2.7%), 인천(1.94%), 대구(1.76%)에 이어 네번째로 투자수익률이 높았다.

공실률은 도심 공동화로 인해 전분기보다 상승했다. 광주 오피스 공실률은 14.8%로 북구지역의 신규 입주 수요 부족으로 전분기 대비 0.4%포인트 높아졌다. 매장용 공실률은 더 심각해 전분기보다 1.3%포인트 오른 16.1%를 기록했다. 임대료는 전국 최저 수준이었다.

광주의 3층 이상 오피스 빌딩 임대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료는 m²당 5100원으로 대전(4100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저렴했고, 전국 평균(1만5400원)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Market data box showing indices like 코스피지수 (1,728.42), 코스닥지수 (519.21), and 금리 (3.58%) with up/down arrow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e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various properties and services.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Real Estate) listing properties for sale and rent.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현대공인중개사' (Hyundai Real Estate)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properties.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부동산경제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Real Estate) featuring a grid of property listings with details like location, price, and features.